광양시, 피서철 백운산 계곡 생활하수 오염 관리 강화

피서철 하수유입 초과 대비 처리시설 사전 관리 강화
과다한 물 사용 자제 집중 계도와 홍보 활동 병행 예정

광양시는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백운산 계곡을 찾는 행락객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계곡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집합인원 제한 해제 등으로 올해 많은 행락객이 백운산 계곡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피서철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하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초부터 전체 시설을 사전점검 조치하고 공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수거차량 1대를 비상 대기하는 등 미처리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피서철 하수 증가원인 중 하나인 산장, 펜션 등 접객업소에서 필요 이상의 지하수나 계곡물을 사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물 사용 자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종우 하수관리팀장은 "물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는 등 우리 이웃과 계곡에 거주하는 주민을 돕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제9대 고흥군의회 첫 임시회서 전반기 원구성 완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

제9대 고흥군의회는 1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 자리에서 제9대 고흥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학(62세, 다선거구)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열(50세, 나선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에 전명숙(61세, 비례대표)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박규대(47세, 라선거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조영길(50세, 다선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이재학 의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2년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고흥군민의 행복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구성을 마무리한 고흥군의회는 본격적으로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거래완료 후 광고 미 삭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순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를 위해 거래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시는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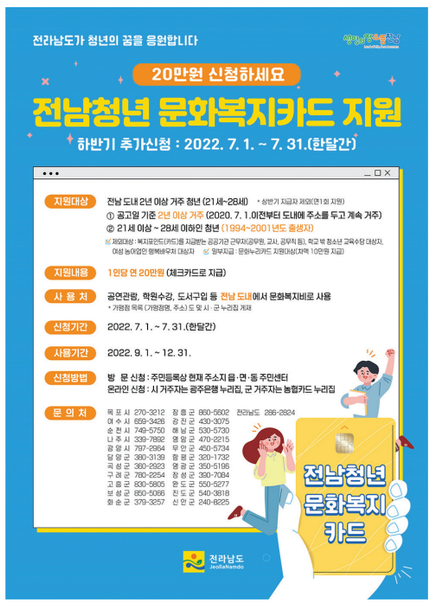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 추가 모집

공연 관람·학원 수강·도서 구입·여행·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복지비 연 20만원 지원



여수시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확대를 위해 거주요건을 변경하고 7월 한 달간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청년 인구를 늘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신청 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21세~28세 청년(1994년~2001년 출생자)이다.

단, 복지포인트(카드)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비 10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10만원만 받게 된다.

추가 신청 기간은 7월 한 달간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9월부터 체크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전남도내, 오프라인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061-659-34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한 달간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

오늘부터 28일까지 4주간

보성군은 오는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4주간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왕우렁이는 환경부에서 2017년 생태계 위해성 평가 1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왕우렁이는 잡초 제거에 탁월해 비용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수거를 소홀히 하면 월동을 한 왕우렁이가 갓 심은 어린 모를 갉아먹고 토종우렁이의 개체수를 위협하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최근 고흥, 장흥, 해남, 진도 등 전남지방에서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벼 재배농가에서는 왕우렁이가 논 이외의 곳으로 유출되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성군은 왕우렁이 유출 방지를 위해 차단망 설치 및 왕우렁이 알 수거를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또한 모내기 후 물떼기 과정에서 우렁이를 논 가장자리로 흘러가게끔 해 수거토록 하고, 깊이갈이나 동계작물 재배도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를 위해서 왕우렁이를 활용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우렁이 농법 활용과 생태계보전을 위해 왕우렁이 일제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성=김덕순 기자